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March 2011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 금융**
- **UNEP FI Korea Group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Register Now!**

“Black Swan”의 저자, Global Roundtable 인사말 예정



철학자, 통계학자, 수필가이자 베스트셀러 (*The Black Swan, Fooled by Randomness*)의 저자인 Nassim Nicholas Taleb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UNEP FI Global Roundtable의 기조연설자로 확정되었다. Taleb은 개최식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System, Stabili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UNEP FI Global Roundtable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보다 반년 앞서 개최되어 600여명의 산업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무하는 아젠다 세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프타운, 멜버른, 뉴욕, 도쿄, 리우데자네이루,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개최된 Global Roundtable의 성공을 토대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본 Global Roundtable은 금융서비스·투자 부문을 위한 ESG 이슈 관련 활동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참가신청 링크](#)

원헌, 4/4, 금융부문의 환경 및 생태계 리스크·기회 관련 워크샵



UNEP FI, HVB(HypoVereinsbanks)와 VfU(Verein für Umwelt-management und Nachhaltigkeit)는 금융부문의 환경 및 생태계 리스크·기회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워크샵을 공동주최한다.

본 행사는 금융계 자연자산과 시스템적 리스크의 통합과정에 대한 핵심지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본 워크샵은 자연자본정책 (Natural Capital Statement)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UNEP FI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이슈를 내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상세내용 참조](#)

베이징 지속가능성 포럼, 4/19, 주요 은행들과 UNEP FI의 우수사례 나열



국제 은행업계 대표들은 환경 리스크 관리 및 녹색 여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4월, 높은 기대 속에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일 행사인 중국 지속가능 은행 포럼에 참가할 예정이다. UNEP FI가 WWF China,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와 공동주최하는 본 회의는 2007년 중국정부의 녹색여신정책(Green Credit Policy) 발표에 이어 중국은행들의 환경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른 여신·투자사례 적용을 위한 근래의 공동 노력에 응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asiapacific@unepfi.org



제 3회 라틴아메리카 환경·사회적 리스크 분석 교육 워크숍, 성공적 개최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30 여명의 리스크 관리자 및 분석가들이 2011년 3월 17일과 18일에 걸쳐 진행된 UNEP FI / EcoBanking ESRA(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교육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 시티의 Club de Banqueros에 모였다. 본 워크숍은 Mexican Banking Association 의 대표 Juan Carlos Jimenez 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어 Ecobanking 프로젝트 매니저, Edgar Rojas 와 Santander Brazil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매니저인 Christopher Wells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세계 최초 기후 채권 발행, 초읽기 단계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BI; Climate Bonds Initiative)는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Brussels에서 진행된 유럽 풍력 에너지 협의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Conference) 에서 녹색 및 기후 채권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 보전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채권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이 기준은 지속가능 기관투자자들에게 저탄소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환경 보전 채권발행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구조를 제시한다. 다가오는 CBI 최초 기준부합 기후채권 발행 일정 이전에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5월에 발급되는 본 채권의 가치는 약 \$2.5억에 달한다.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BI)는 4월 15일까지 기준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내용 참조](#)

6/5, 세계 환경의 날



1972년 이래 매년 기념하는 6월 5일 환경의 날은 UN 의 세계 환경인식을 향상시키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올해는 Forest: Nature at your Service를 주제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녹색 경제로 나아갈 것을 환기시킨다.

2011년 본 행사의 주최국은 산림이 전체 국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로 확정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인도, 태양광 현금인출기 도입 열풍



인도 금융권의 거센 그린 IT 바람의 영향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의 녹색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 3월 26일, 인도 연방은행(Union Bank of India)은 자사 최초로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현금인출기를 도입했다. 이 현금인출기는 기존의 인출기들과 달리 별도의 냉각기가 필요없으며 소비전력이 40-100W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력 절약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현금인출기는 또한 지문인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인도의 최대 상업은행인 State Bank of India는 지난 한 해 동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현금인출기 300대를 도입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현금인출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통해 연간 18,500kg의 CO₂를 배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올해 희토류 생산량 9만여 톤으로 제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희토류 채굴 쿼터를 89,200톤으로 제한한 데 이어 올해 희토류 채굴량을 93,800톤으로 제한한다. 2011년 3월 31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올해 전국 희토류 채굴 쿼터를 경희토류 8만400톤, 중희토류 1만3400톤 등 총 9만3800톤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국 내 여전히 성행하는 무허가 채굴로 인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규 채굴허가를 잠정중단하고 채굴쿼터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채굴행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희토류 세금을 0.4-3위안에서 30-60 위안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참조](#)

솔라프론티어, CIS 박막전지 효율 신기록 경신



일본 쇼와셀 자회사인 솔라프론티어의 아츠키 연구센터가 CIS 박막 태양전지 효율 17.2%를 기록했다. 이는 이러한 방식의 태양전지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써 지난해 9월 솔라프론티어가 기록한 16.3% 보다 무려 1%나 높은 기록이다.

솔라프론티어의 CTO인 사토루 쿠리야가와는 “이번 효율 기록은 대량생산 수준에서 CIS 태양전지가 결정형 태양전지를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과정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연구결과를 끊임없이 이미 구축된 양산설비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록은 오는 6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태양광 전문가 포럼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일본 원전 위기사태로 인한 아·태지역 풍력발전 수요 증가 예측



뉴질랜드헤럴드는 증가하는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 우려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풍력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위기사태로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풍력개발회사 주가는 지진 발생 전인 3월 10일 43,500 엔에서 3월 14일 5만 엔으로 상승한 바 있다.

뉴질랜드 풍력에너지협회 (NZWEA; New Zealand Wind Energy Association)의 회장, Fraser Clark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와 대지진의 여파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5m 높이의 쓰나미를 맞은 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일본 내 풍력 발전소는 잘 돌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의 원전재앙이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Clark는 풍력발전이 오늘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자원인 만큼 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참조](#)

국산 CNG 용기 우즈베키스탄 수출



환경부는 3월 29일부터 4일에 걸쳐 진행된 중앙아시아 국가 천연가스자동차 공무원 초청 '11 글로벌-코리아 천연가스자동차 연수' 추진 과정에서 국내 압축천연가스 (CNG; Compressed Natural Gas) 용기 제작사 ENK와 GM 우즈베키스탄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NK는 향후 1년간 우즈베키스탄에 CNG 용기 10만개 (\$26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글로벌-코리아 천연가스자동차 초청연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환경협력 강화와 국내 NAV(천연가스자동차; Natural Gas Vehicle) 산업의 해외 수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선택, 태양광 시장서 선두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인 선택파워홀딩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 선택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1572MW의 태양광 모듈을 판매해 29억19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매출 기준 연간 성장률이 71.4%에 달했다.

선택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메스키토 솔라 1' 프로젝트에 80만장(150MW급)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중이다. 이에 대해 선택의 최고경영책임자(CCO), Andrew Beebe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낙관하며 구축 완료시, 선택은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업체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세내용 참조](#)

중국 LDK 솔라, 태양광 발전사 솔라파워 인수



세계 최대 웨이퍼 업체, 중국 LDK 솔라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회사인 솔라파워의 지분 70%를 약 3,3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지난 1월 솔라파워에 1,000만 달러의 인수대금 지불에 이어 3월 31일, 나머지 2,300만 달러를 지불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LDK 솔라의 회장, Xiaofeng Peng은 이번 인수로 LDK 솔라의 수직적인 하류 조직이 보완됐다"며 "미국 내 발전사 업무를 확장하게 됐고 전세계 시장에서의 자사 경쟁력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LDK 솔라는 이번 인수를 통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 프로젝트를 위한 발전사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내용 참조](#)

일본,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예정

일본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 행정쇄신 담당 대신이 'ELIY POWER'의 리튬이온 전지 공장에 방문하여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이는 일본 리튬이온 전지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힌 이유가 자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담당 대신은 "일본 성장을 짊어져야 할 제품의 성장을 규제가 막고 있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리튬 이온 전지가 완성된 후 전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 비해 각 공정에 과도한 설비비용을 요구하는 엄격한 일본의 소방법이 일본 제조업체들의 성장세를 둔화시킨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곧 전기차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LG전자, 녹색성장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본격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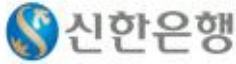


LG전자는 4월 5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녹색 성장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후원하는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LG전자가 고용노동부·환경부와 체결한 '다자간 협력모델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자금난을 겪는 우수한 사업내용을 보유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LG 전자는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재활용 및 폐기물, 친환경 푸드 및 용품, 정보기술(IT) 기반 녹색성장, 환경보건 등 6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여 총 10개의 기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LG 전자는 이 기업들에 최대 3억 원씩 지원하여 이들이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에너지나눔과 평화, 에너지팜, 두꺼비하우징, 송지, 원이세라믹, 에코시티서울, 그린플러스, 외갓집마당, 트리플래닛, 도심속 마을사람의 향기 등이다. 앞으로 이들은 재정지원과 함께 경영지원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도 받게 된다.

[상세내용 참조](#)



신한은행, 경영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MOU 체결

- MOU를 통한 경영혁신협회와 공조 & 경영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JUMP-UP 경영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 운영
- 'JUMP-UP 경영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협회 준회원 대상
 - 기업 운전/시설자금 우대지원 및 기업컨설팅, IPO,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금융지원의 기반 마련



하나은행, 명동 플래그십스토어

- 하나은행 사회공헌 슬로건 '푸름, 나눔, 문화' 중 푸름에 컨셉트를 맞춰 '나무를 키우는 은행' 이미지 표현
- 기부 게임, '그리니' 유치
 - '그리니'게임: 씨앗을 꽃으로 키워 '그리니'를 육성하는 게임으로, 지구의 탄소 저장고로 알려진 맹그로브 숲 보존기금 모금을 통한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



대구은행, 지역 중소기업 위해 100억 원 특별출연

- 지역 중소기업 위한 지원금 총 100억 원 특별출연: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 70억 원 + 보증료 30억 원
- 대상: 창업, 수출, 녹색성장, 설비투자 등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우선시

英FTSE 윤리적 기업 지수 편입

- FTSE4Good 지수에 최초 한국기업 중 하나로 편입되어 동지수를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 수혜로 당행 주가의 긍정적 효과 기대
- FTSE4Good: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Stock Exchange가 세계적인 윤리적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
 -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지수(MSCI)와 함께 세계 2대 투자지표로 꼽힘





손해보험 산업 지속가능지수 순위

순위	손해보험	지속가능지수 총점
1	삼성화재보험	752.24
2	현대해상화재보험	693.31
3	동부화재보험	639.86

(자료:ERISS)

삼성화재, 손해보험사 지속가능지수 1위

- 지속가능지수 1000점 만점의 752.24점 기록
- 국내 9개 평가대상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700점 대 진입, 1위 기록
-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경영, 혁신, 재무성과 등 명성지수의 14개 평가항목 전체에서 모두 최고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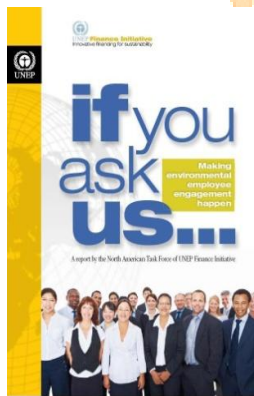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풍력사업에 1,100억 원 지원

-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텍사스·오클라호마에 추진 중인 100MW 급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약 \$1억 지원
- 본 금융지원을 통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진출의 기반 마련
- “앞으로도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Green Pioneer Program)’을 통해 풍력 등 녹색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녹색금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New Publications

UNEP FI 북미 회원사들의 임직원 환경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노력



2011년 3월 31일 토론토에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UNEP FI 북미 회원사들은 기관 내 임직원 환경 인게이지먼트의 증진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If you ask us...: Making environmental employee engagement happen](#)” 를 표제로 2010년 후반기에 20여 개의 UNEP FI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는 북미 기업문화 내 인게이지먼트 현상의 최신 성향과, 자원 절약 이니셔티브와 같은 환경 퍼포먼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내부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원사들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산업의 우수사례 집합을 조명하여 기업문화·지속가능성 통합의 길에 놓인 장애물에 대해 고유한 통찰을 제공한다.

[보고서 전문](#)

Reddy – Set – Grow: 성장하는 산림 탄소 금융시장 탐구를 위한 런던 보고서 발표회

UN-REDD PROGRAMME



산림탄소 금융에 관한 새로운 UNEP FI 보고서 발표회인 “[REDDy, Set, Grow](#)” 의 참가 등록기간이 시작되었다. UNEP FI와 UNEP UN-REDD Programme이 공동주최하는 본 행사는 오는 5월 6일, 런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NP Paribas, Allianz)과 정부, 이 외 UN 산하 에이전시들의 수석 대표들이 모여 초기 시장과 연관된 리스크·기회를 논하고 산림 생태계가 제공하는 방대한 환경·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 책임 금융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구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열대 지방 삼림 벌채율을 반감(半減) 하고 지구 온도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70-330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삼림벌채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조에 해당하는 국제적 경제 비용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한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방안 개발 및 민영부문의 투자·기술 통합이 시급하다.

[상세내용 참조](#)

마감 임박: 4/4~25, UNEP FI 기후변화에 관한 온라인 강의

LAST PLACES LEFT!

UNEP FI 회원사들을 위한 50 % 할인 쿠폰 제공



UNEP FI의 다음 온라인 강의인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기회”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가 2011년 4월 4일부터 시작된다. 본 강의는 금융기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진에게 개인자산, 기후변화, 기후관련규정 등 다양한 방면의 인터페이스에서 기본지식을 갖추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